

한국어 저작물의 해외수출 여전히 걸음마 단계

전문번역가 양성과 정책적 지원 강화돼야

해마다 번역서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반면 한국어 저작물의 해외출판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몇몇 재단을 중심으로 번역·출판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전과 전문 학술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는다. 번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행한 《2001, 한국 출판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출간된 번역 도서는 8천 8백여종에 이른다. 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2000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문학 번역작품집의 해외출판은 최근 20년간 173권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집계한(대략 1890년대부터 1998년까지) 9백 5십여종,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출간된 37종을 더해 지난 백여년 동안 외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저작물은 1천 2백여종도 안되는 셈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번역·출판 지원

한국어 저작물에 대한 번역·출판 지원은 1980년 문예진흥원 주도로 시작됐다. 여기에 대산문화재단이

1993년, 한국문학번역금고가 1996년 합세해 비로소 1990년대에 이르러 활성화됐다.

기존 문예진흥원의 번역 관련 업무와 한국문학번역금고의 기능을 통합해 지난 3월 출범한 한국문학번역원(원장 박환덕, 이하 번역원)은 한국어 저작물의 번역을 지원해온 대표적 기관이다. 번역원은 그동안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의 번역·출판을 지원하고,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인적 교류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주력 사업으로 언어권별 한국문학 번역작품, 서평, 번역자에 대한 정보 및 출판사 현황 등 기초자료를 집대성해 내년 6월까지 한국문학 번역관련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번역원의 고영일 박사는 “그동안 해외에서 번역·출판된 작품이 대부분 현대문학이었다”며, “한국문학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고전 작품의 번역·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를 위해 번역원은 《삼국유사》를 비롯해 《사씨남정기》《연행록》《제문선집》《서간문 선집》《인물열전》 등 고전목록 20선을 선정해 놓고 있다. 또한 번역원은 지난 8월 15일까지 2001년 번역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 접수도 받았다. 고박사는 “현재 115권에 대해서 심사중이다. 올해는 좋은 번역자들이 대거 참여해 당초 40권 정도의 지원이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번역문화 관련 뉴스레터를 창간해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0월 15일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부스를 마련해 현지에서 출판사 섭외에 나선다. 또 내년에는 ‘2002 월드컵’을 기념해 시, 소설, 평론 등 각 장르를 아울러 1백종 정도의 포켓북도 제작해 공항 및 월드컵관련 행사장에 비치할 예정이다.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도 우리 문학작품을 해외에 알리고 역량 있는 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 번역·출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대산문화재단은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의 4대 언어권으로 나뉘 시, 소설, 희곡 등의 문학작품과 고전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번역지원을 거쳐 출판지원까지 끝낸 책은 총 37권에 이른다.

이미 출판된 책들을 살펴보면, 불어가 14권으로 가장 많고, 독어가 12권, 영어 6권, 스페인어가 5권으로 그 뒤를 잇는다. 연도별 출간 종수를 살펴보면, 1995년 3권으로 시작해 1999년과 2000년에 각 9권, 올해는 서정인의 《달궁(Talgung)》(이인숙·김경희·Maryse 공역, Seuil), 김혜순의 《구름성의 여자(Die Frau im Wolkenschloss)》(김영옥·한정화 공역, Pendragon)를 비

못해 현재까지 7권의 책이 발간됐다. 대산문화재단의 안영국 대리는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출간된 책들이 대부분 초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간된 “김유정의 《소나기(Une Averse)》(최미경 · Jean-Noël Juttet 공역, Zulma)는 비교적 단시일 내에 초판이 다 팔려 한국문학 소개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안대리는 또 “내개 언어권별로 신청자를 접수받지만, 신청자가 운데 영어권 신청자가 대부분이고, 참신한 번역자 발굴이 어렵다”며, “무엇보다 번역가 층이 얇은 게 문제”라고 번역지원의 어려움을 덧붙였다.

번역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 개선해야

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이 주로 문학작품을 지원한다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김성재)은

학술도서 번역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특히 동서양학술명저 번역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국내 우수 학술 도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번역업적 및 번역능력이 우수한 번역자를 발굴해 중점 지원한다. 올해도 40여종 내외의 도서를 번역 지원하는데, 번역지원 대상 도서는 시중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어렵지만 반드시 번역될 필요가 있으며,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지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저작이다. 특히 번역지원은 영어 번역에 한정하며, 원어민 한국학 전공자와의 공동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단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번역출판은

갈 길이 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김석호 연구원은 “전세계 130개국 27개 언어로 번역돼 수천만부가 팔린 <해리포터> 시리즈는 출간되기 무섭게 국내에서 번역출판됐지만, 이들 번역도서의 번역의 질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상업적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번역출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연구원은 또 “올바른 번역은 텍스트를 축자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담긴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상을 발견하는 작업이어야 한다”며, “인구에 회자하는 ‘인문학의 위기’도 올바른 번역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한다.

번역원의 고영일 박사는 우선 “번역을 학문적인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각 대학에서 시행되는 교수 업적평가의 대상에서 번역물이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원어민 한국문학 전공자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번역가 양성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번역가 양성하고, 번역료 지급도 현실화해야

국내 출판물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 저작물의 번역출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길 그레이트 북스> 등 굵직굵직한 인문학총서를 기획해온 한길사 이승우 차장은 “마땅한 번역자를 찾지 못해 중요한 책이 출판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번역출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문 번역자 발굴이다. 특히 고대·중세철학 전공자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번역도 어렵지만, 번역의 질을 검증할 수도 없다”며 번역출판에 따른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벽의 약속》(로맹 가리, 고려원) 등을 번역한 심민화씨는 번역료 문제를 강조한다. 심씨는 “출판사들은 번역료를 인세로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인세와는 비교도 안되는 낮은 인세율을 적용한다. 전문 번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련기간, 노동의 강도에 합당한 수준으로 번역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전문 번역가가 번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급금을 지불하고, 번역 후에는 철저한 원문 대조로 오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벽의 약속》(로맹 가리, 고려원) 등을 번역한 심민화씨는 번역료 문제를 강조한다. 심씨는 “출판사들은 번역료를 인세로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인세와는 비교도 안되는 낮은 인세율을 적용한다. 전문 번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련기간, 노동의 강도에 합당한 수준으로 번역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전문 번역가가 번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급금을 지불하고, 번역 후에는 철저한 원문 대조로 오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나 학술재단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 현대 미술》(카트린느 미예, 시각과언어) 등을 번역한 염명순씨는 “정부나 학술재단 차원에서 인문·과학 서적 번역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신 있는 출판사도 힘을 얻고, 소수의 독자층이라도 유용한 전문서적을 읽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고 말한다. 또한 《행복한 청소부》(모니카 페트, 풀빛) 등을 번역한 김경연씨는 “무성의한 남의 것 베끼기, 부적합한 언어사용, 자의적인 번역” 등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 박옥순 기자

번역학 관련 책들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번역과 일본의 근대》	가토 슈이치 외	임성모	이산
《번역사 산책》	쓰지 유미	이희재	궁리
《번역이란 무엇인가》	유영남		태학사
《번역과 번역하기》	Roger T. Bell	박경자 외	고려대출판부
《번역의 방법》	아마나카 케이이치	이현기	”
《번역의 오늘》	Marianne Ledderer	전성기	”
《번역의 길잡이》	이기문		백산출판사
《전문번역가로 가는 길》	이종인		예사모
《번역기술》	김춘수		백암
《번역의 기초이론》	지정숙		한국번역연구원
《번역학》	김효중		민음사
《번역 프리랜서의 길》	가타오카 시노부	지동하 외	한얼
《번역과 제약》	서정목		태학사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전2권)》	김병철		엘유문화사
《불문학텍스트의 한국어번역 연구》	김윤진		서울대출판부
《중국어 번역이론과 기교》	태평무		신성출판사
《번역문학》	연세대번역문화연구소		연세대출판부
《번역출판 실무》	미야타 노부루	박노인	신한미디어